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9. 7. 2(화)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 네오트랜스㈜와 신분당선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 협약 체결** 문화사업 교류와 홍보 통해 공동목표 실현과 상생발전 기대 하루 23만명 이용하는 신분당선에 경북 문화관광 자원 홍보 신분당선 모니터(1,037대)와 역사 활용해 '2019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	문화산업과	 사진별첨
② **경북도, '청년 장보고' 양성으로 중소기업 수출 지원** 2일(화) 제7기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청년인재 105명 입교식 가져 대구지역 청년 34명도 참여... 대구·경북 상생의미 더해	일자리 청년정책관	사진별첨
③ **경북도, 의료관광 우수의료기관 6곳 선정... 지정서 및 현판 전달** 동국대의과대학 경주병원, 안동병원, 구미강동병원, 경산세명병원 등 6개병원 지정	보건정책과	사진별첨
④ **경북도, 베트남·태국 현지 수출상담회... 50만 달러 규모 현장계약** 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 해양수산 전문바이어 초청... 도내 중소기업 10곳 참여 136건, 1,242만 달러 수출상담... 4건 50만 달러 현장계약, 348만 달러 수출계약 진행 신남방국가 진출 발판 마련 및 향후 수출길 개척 성과	해양수산과	사진별첨
⑤ **울진군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조성지역' 공모에 선정** 첨단시설·장비와 정보통신기술(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융·복합 생산성 향상, 친환경, 체계적 차단방역, 최적의 사육환경 구현	축산정책과	사진별첨
⑥ **보조금 부당집행 안되요... 경북도, '찾아가는 예산학교' 문 열어~** 민간보조사업자 등 보조금 교부받는 단체 대상 주민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 등 도민참여로 지방재정 투명 운영	예산담당관	사진별첨
⑦ **경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제2회 미래분과위원회' 개최** 민선 7기 1주년 도정성과 진단 및 향후 방향 논의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 현장 방문, 지방소멸 해법 찾아....	정책기획관	사진별첨
⑧ **경북도, 산사태방지 대책회의 가져... 산사태 예방대응 상황 중간점검** 23개 시군 산림부서장 및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명 참석	산림자원과	사진별첨
⑨ **경북도, 전자산업 혁신전략 추진 본격화** 민선7기 1년, 구미 전자산업 활력회복을 위한 혁신전략 마련 5G, 홀로그램 성과이어 홈케어 가전, 중소기업형 시스템 반도체, 연구개발특구 추가사업 계획	과학기술 정책과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산업과		
		작 성 자	과 장	황 영 호	
			팀 장	오준엽	주무관 윤도영
		연 락 처	054-880-3152		

경북도, 네오트랜스㈜와 신분당선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 협약 체결

- 문화사업 교류와 홍보 통해 공동목표 실현과 상생발전 기대 -
- 하루 23만명 이용하는 신분당선에 경북 문화관광 자원 홍보 -
- 신분당선 모니터(1,037대)와 역사 활용해 '2019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 -

경상북도는 2일(화) 경주세계문화엑스포기념관에서 네오트랜스(주)와 문화관광사업 교류 및 홍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신분당선을 운영중인 네오트랜스(주)는 경북도·경주시·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재)문화엑스포(이하 경상북도 등)가 주관하는 문화행사에 필요한 장소 제공과 홍보를 지원하고, 경상북도 등은 신분당선 직원과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문화행사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네오트랜스(주)는 신분당선(강남~광교)을 운영 중인 회사로 두산그룹이 모기업이며 두산건설이 최대주주인 회사다.

수도권 중전철인 신분당선은 전시,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문화지하철을 표방하면서 2011년 강남~정자구간 운행을 시작해 2016년에는 광교구간까지 연장 운행해 오고 있다.

신분당선은 강남~광교구간 13개역을 운행하여 일일 이용객이 23만명에 이르며 2022년에는 신사~강남구간을 추가로 개통할 예정이다.

(재)문화엑스포는 신분당선 차량 엘시디(LCD)모니터(960대)와 역사 내 모니터(77대)를 활용해 2019경주세계문화엑스포(10.11~11.24)를 홍보할 계획이다.

신분당선은 지난 2019경주세계문화엑스포 봄페스티벌(5.4~5.6)때에도

홍보영상을 무료로 방영해 수도권 시민들에게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알리는데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수도권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은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경북을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면서

“우수한 홍보 인프라를 갖춘 신분당선이 수도권 시민들에게 경북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첨병 역할을 해 줄것으로 믿는다” 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 경주시 · (재)문화엑스포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네오트랜스(주)

신분당선 활용 문화관광 활성화 협약체결

개 요

○ 일 시 : 2019. 7. 2(화) 16:00

○ 장 소 : 경주세계문화엑스포기념관

○ 체결기관 : 도, 경주시, (재)문화엑스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네오트랜스(주)

○ 주요 참석자(9명)

- 도지사, 경주시장,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네오트랜스(주) 대표이사, 신분당선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서울호서교육재단 이사장, 구미대학교재단 이사장, 박대성 화백

○ 협약내용 :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보 및 물적자원 공유·지원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5:30(30′)	○ **접견 및 환담**	문화센터 접견실
15:30~15:45(15′)	○ 이동(문화센터→기념관)	도보이동
15:45~15:50(05′)	○ 개회 및 참석인사 소개	사회자
15:50~16:00(10′)	○ **인사말씀** -경상북도지사, 경주시장, 네오트랜스(주)대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엑스포 사무총장	경주세계문화엑스포기념관
16:00~16:05(05′)	○ **MOU 서명식**	
16:05~16:15(10′)	○ **기념품 전달 및 기념 촬영**	
16:15~16:30(15′)	○ 축하공연 _ 피아노와 가야금 협연	
16:30~16:50(20′)	○ 경주엑스포기념관 관람	

경상북도·경주시·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주세계문화엑스포 – 네오트랜스(주)

홍보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경상북도·경주시·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주세계문화엑스포(이하 '경상북도 등' 이라 한다.)와 네오트랜스(주)는 상호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홍보 및 문화사업 교류에 관련한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문화사업 홍보와 교류를 통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및 기간)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아래와 같다.

① 협약 사업 : 공동 문화사업 홍보 및 관광 활성화 교류

② 협약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③ 협약 대상

1. 문화행사, 각종 이벤트 공동 추진 및 혜택제공
2. 홍보매체 및 장소 교류, 협력 및 지원
3. 기타 홍보 활동 및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 협조 등

제3조(역할의 분담)

① 제2조 공동 협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등'은 신분당선 직원 및 이용고객에 대한 문화행사 관련 혜택을 제공하고, 네오트랜스는 '경상북도 등' 이 개최하는 문화행사를 위해 장소 제공 및 신분당선 시설 내 홍보를 지원한다.

②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 문화사업 및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추진토록 한다.

③ '경상북도 등' 및 네오트랜스는 본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양 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고, 기타 상호 요청에 의해 지원,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적극 협력한다.

④ 협약기간 동안 개최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및 네오트랜스의 공동행사에는 양 기관의 명칭을 협력사로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의무의 양도제한 및 기간 등)

① 협약 참여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를 상호간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협약연장은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통한 연장요청으로 진행하며, 협의진행이 없을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단, 협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연장할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③ 협약기관 중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는 타 기관에게 서면 통보 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협약서의 작성 보관)

본 협약이 상호 협의 하에 성립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5부 작성하여 협약에 참여하는 각 기관은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7월 2일

경 상 북 도	경 주 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네 오 트 랜 스 ㈜
도지사 이 철 우	시 장 주 낙 영	사 장 김 성 조	사무총장 류 희 림	대표이사 오 병 삼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일자리청년정책관		
		작 성 자	정책관	박 성 근	
			팀 장	이배일	주무관 한미애
		연 락 처	054-880-2759		

경북도, '청년 장보고' 양성으로 중소기업 수출 지원

- 2일(화) 제7기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청년인재 105명 입교식 가져 -
- 대구지역 청년 34명도 참여... 대구·경북 상생의미 더해 -

경상북도는 지역 중소기업 수출을 담당할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일(화)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제7기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입교식을 가졌다.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는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경북도와 한국무역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청년무역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총 398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재학생 및 대학원 진학생 등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287명 중 250명(87%)이 취업에 성공해 제조, 무역, 유통 등 다양한 수출입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제7기 교육생은 대구 및 도내 소재 대학 재학생(졸업생 포함) 또는 주소지를 대구·경북에 둔 청년(만 15~39세)들로, 특히 올해는 대구·경북 상생차원에서 지원대상을 대구지역 대학생까지 확대해 경북 71명, 대구 34명 등 총 105명을 선발했다.

이를 통해 경북도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대구광역시와 상생협력의 기조 아래 대구지역 청년인재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청년취업 활성화와 수출기업의 성장동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지난 6월 온라인 무역기초 교육을 시작으로 2일(화)부터 29일까지 4주간 집합교육을 받는다. 이들은 무역이론, 무역

영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마케팅 경진대회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 교육을 통해 글로벌 무역현장에서 활용되는 실무능력을 갖추게 된다.

경북도는 교육 수료 후에는 ▲우수 수료생 글로벌 무역현장탐방(뉴욕, 중국 광저우, 인도네시아 수출입상품 교역회 등) ▲원산지관리사 취득 과정 ▲1:1 개별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및 일자리 매칭 등 다양한 사후 취업연계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특화된 글로벌 직무프로그램으로 무역인재를 양성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과의 매칭으로 취업률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과정을 더욱 내실화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를 통해 실력을 다듬고 미래를 충실히 준비하여 글로벌 무역인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 면서

“청년유출과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는 청년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갖고 변화의 길을 모색한다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이라며 새 출발을 응원했다.

붙임 사진자료

제7기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입교식 개최

◈ 국내외 산업·고용 환경 등 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청년무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참여교육생들의 각오와 결의다짐의 장

행사개요

❍ 일　　시 : 2019. 7. 2(화) 11:00

❍ 장　　소 : 대구무역회관 4층 대회의실

❍ 참　　석 : 110명 정도(참여교육생 105명 등)

- 한국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 대구경북기업협의회 최우각 회장
- 제7기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교육생 105명 등

❍ 주요내용 : 청년무역 전문인력 양성과정 참여교육생 격려

❍ 주　　관 :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1:00 ~ 11:05	5′	▸ 개회 및 경과보고	
11:05 ~ 11:15	10′	▸ 인사말씀 - 협회 부회장 - 道 경제부지사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11:15 ~ 11:20	5′	▸ 교육생 선서	교육생 대표 2인
11:20 ~ 11:25	5′	▸ 기념촬영 및 폐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화)】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작성자	과 장	김 영 길	
			팀 장	박승권	주무관 전은경
		연락처	054-880-3800		

경북도, 의료관광 우수의료기관 6곳 선정.. 지정서 및 현판 전달

- 동국대의과대학 경주병원, 안동병원, 구미강동병원, 경산세명병원 등 6개병원 지정 -

경상북도는 2일(화) 지역의 의료관광 사업을 선도해 나갈 6개 병원을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지정서와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관광 우수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등록기관을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신규의료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공개모집하고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경북도는 의료관광 사업추진 의지, 인프라 구축, 전문성, 국내외 인증 획득 여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등 평가항목에 대한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동국대학교의과대학 경주병원, 안동병원, 구미강동병원, 경산세명병원, 포항우리들병원, 포항예스치과의원 등 모두 6곳을 의료관광 우수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6개 의료기관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향후 3년간 도 지정 의료관광 우수의료기관 명칭사용, 국·내외 홍보설명회 우선참여, 홈페이지 구축 및 리뉴얼, 홍보물 제작·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2016년부터 구미강동병원 등 6개 기관은 약 8,500여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116여억 원의 진료수입을 올렸다.

도는 올해도 의료관광 전문코디네이터 양성, 베트남 현지 연락사무소 운영, 카자흐스탄 홈쇼핑 건강검진상품 판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나눔의료사업, 한국관광공사와 국제 의료관광 박람회 참가, 공동 홍보설명회 추진 등 다양한 의료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의료기관 접근성과 지역 인프라 등이 타 시도보다 열악하지만 우수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특화의료기술, 문화관광자원을 융합한 새로운 의료관광상품 개발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화)】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과		
		작성자	과 장	허 필 중	
			팀 장	권기수	주무관 정환철
		연락처	054-880-7721		

경북도, 베트남·태국 현지 수출상담회... 50만 달러 규모 현장계약

- 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 해양수산 전문바이어 초청... 도내 중소기업 10곳 참여 -

- 136건, 1,242만 달러 수출상담... 4건 50만 달러 현장계약, 348만 달러 수출계약 진행 -

- 신남방국가 진출 발판 마련 및 향후 수출길 개척 성과 -

경상북도는 도내 해양·수산제품의 동남아시장 홍보 강화 및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달 24일(월)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 현지에서 동남아 해양수산 전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고 총 4건 50만 달러 규모의 현장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9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수출상담회는 동남아 최대한류 시장이자 신흥성장 국가인 베트남과 신남방 경제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있는 태국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도내 우수 해양·수산기업의 판로 다각화와 제품 홍보를 위해 마련했다.

수출상담회는 25일 베트남 하노이를 시작으로 27일 태국 방콕에서 도내 해양·수산 제품 생산 중소기업 10개사가 참가해 현지 12개사의 바이어들과 일대일 미팅으로 진행했으며 안동간고등어, 조미김, 붉은대게살, 자숙골뱅이, 대게간장 등 수산가공품과 천연 해조류 기능성화장품, 불가사리 콜라겐 천연비누 등을 선보였다.

이번 현지 수출상담회에서는 136건, 1,242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해 4건, 50만 달러의 현장 계약을 체결했으며, 348만 달러의 수출 계약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특히 수출상담회 참가업체 중 조미김을 취급하는 한미래식품은 과거부터 최대 한류 시장이자 성장세를 보이는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략하는 등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다.

한편 도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태국 식품 박람회에 6개 업체가 참가해 제품 홍보와 함께 13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홍콩식품박람회, 중국박람회 참가와 베트남 시장 개척단 파견을 통해 해외 시장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는 복안이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신남방정책으로 동남아시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수출 상담회는 도내 우수 해양수산제품의 경쟁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면서

“향후 동남아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출협의체 구성 및 해외진출 관련 세미나 개최, 우수 해외바이어 발굴과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사업개발과 추진으로 수산가공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2019 베트남·태국 수출상담회 실시 결과

❖ 경북지역 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산중소기업 육성 필요성 대두

상담회개요

○ 사 업 명 : 2019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해외 수출 상담회

○ 행사기간 : 2019. 6. 24.(월) ~ 6. 29.(일)

○ 장　　소 : 베트남(하노이 그랜드 호텔), 태국(방콕 홀리데인호텔)

○ 참가업체 : 경북 해양·수산 제품 생산 중소기업 10개사

○ 전시품목 : 수산가공식품 및 바이오 소재 화장품 등

상담회결과

(단위 : 건, 만달러)

연번	소　　속	상담실적 (건수/금액)	계약실적 (건수/금액)	진행실적 (건수/금액)	비　고
	합　계	136/1,242	4/50	96/348	
1	국민농수산 영농조합법인	14/75	2/30	11/42	순살고등어 등
2	세웅수산	14/113		10/43	붉은대게살
3	셀드로우	14/36		6/21	기능성화장품
4	아무르콜라겐	14/31		14/18	콜라겐 화장품
5	안동간고등어	13/20		12/13	안동간고등어
6	정원FnF	13/70		11/53	자숙골뱅이
7	자두푸드시스템	13/50	1/10	10/29	김자반, 조미김
8	한미래식품	12/787		10/88	조미김
9	허니스트	15/40	1/10	6/29	향장제품
10	허브F&C	14/20		6/10	비누, 화장품,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화)】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축산정책과		
		작성자	과 장	남 진 희	
			팀 장	이준규	주무관 서재호
		연락처	054-880-3412		

울진군,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조성지역' 공모에 선정

- 첨단시설·장비와 정보통신기술(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융·복합 -
- 생산성 향상, 친환경, 체계적 차단방역, 최적의 사육환경 구현 -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조성지역에 경북 울진(한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는 축산 분뇨·악취와 질병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인 축산 발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 3월부터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역을 공모(3.28~6.14)했다.

공모신청 시군을 대상으로 방역·분뇨·정보통신기술(ICT)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점검, 구두(PPT) 발표 등 3단계 심층 평가를 거쳐 경북 울진을 한우부분 조성지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울진군에는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2020년까지 부지 조성 및 단지내 도로 개설, 용수·전기 인입 등의 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공사비 75억원(국비 52.5, 지방비 22.5)과 2021년까지 스마트 축사 모델 성공사례를 개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실습 교육장 설치를 위한 20억원(국비 10, 지방비 10) 등 총 95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축사와 가축분뇨·방역시설 설치 등 시범단지 참여농가의 개별시설 설치 사업비는 2021~2022년 기간중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농식품부의 기존 정

책사업에서 패키지로 지원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울진지역의 스마트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조성은 그동안 악취와 분뇨, 악성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기피산업으로 인식되던 축산업을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축산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동시에 스마트 축산 단지를 교육·관광 등과 연계함으로써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참고자료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모식도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분뇨·질병·생산관리 체계

구 분	관 리 체 계	
가축분뇨 관 리	◈ 가축분뇨를 축사에서 퇴.액비자원화 처리 단계까지 외부와 차단된 밀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	
	악취관리	◦ 밀폐 축사구조 → 축사내 공기 정화 → 분뇨 자동이송 시스템 → 완숙퇴비제조 → 농가 환원
	수질관리	◦ 분뇨 자동이송 시스템 → 뇨분리 → 액비저장조 발효 → 발효 완료 → 완숙퇴비제조 → 농가 환원
방 역 시스템	◈ 사람 및 동물로 인한 질병전파 매개체 유입차단, 외부 차량 단지 내 진입제한으로 외부유입 전파 차단	
	차단방역	◦ 가축·사료·약품·퇴액비·축산물(원유·계란) 독립적 입출고 시스템 구축으로 외부 차량 단지내 진입제한
	소독시스템	◦ 진입 도로 차량 소독시설, 대인·축사내·외부 소독시설
	폐사축	◦ 가금·돼지 폐사축은 별도 사체처리기로 내부에서 처리
생산성 향 상	◈ 환경·사양·경영관리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원격으로 제어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축산업의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	
	환경관리	◦ 축사내부 온습도, 정전 등 내부 환경을 제어
	사양관리	◦ 개체별 자동급이기, 출하선별기 등을 통한 생산비 감축
	경영관리	◦ 생산·경영·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작성자	담당관	박 재 구	
			팀 장	신동보	주무관 이홍작
		연락처	053-880-2153		

보조금 부당집행 안되요... 경북도, '찾아가는 예산학교' 문 열어~

- 민간보조사업자 등 보조금 교부받는 단체 대상 -
- 주민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 등 도민참여로 지방재정 투명 운영 -

경상북도는 2일(화) 도청 동락관에서 민간보조단체 임직원, 예산낭비 도민감시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예산학교' 문을 열고 보조금예산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

경북도의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지방재정 현황을 비롯해 보조금의 편성, 집행, 평가 등 예산운영 전 과정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민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는 더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동, 포항, 구미 3개 권역별로 나눠 시행한다.

이날 개최한 예산학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방재정 현황 소개, 주민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제도 소개에 이어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감사사례 특강에서는 민간보조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잘못된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지방재정에 대한 다양한 재정지표를 통해 지방재정에 대한 현주소를 알리고, 주민참여예산과 예산낭비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도민들의 역할과 적극적인 동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보조금 예산편성과 집행시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 절차를 안내

하고 강화된 지방재정법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민간보조금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하고, 법률이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조사업 감사사례 특강에서는 감사원,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지적된 보조금 부당집행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보조금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조금이 도민의 혈세임을 인식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예산집행으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도민들이 예산 편성단계부터 집행까지 주민참여예산과 예산낭비 신고제도 등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이날 안동권 교육을 시작으로 3일(수) 포항시 평생학습원, 9일(화) 구미시 민방위교육장에서 두 차례 더 열린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작 성 자	기획관	정 성 현	
			팀 장	박시균	주무관	박현정
		연 락 처	054-880-2115		

경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제2회 미래분과위원회' 개최

- 민선 7기 1주년 도정성과 진단 및 향후 방향 논의 -
-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 현장 방문, 지방소멸 해법 찾아.... -

경상북도는 2일(화) 의성에 위치한 이웃사촌지원센터에서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제2회 미래기획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는 도정 핵심정책에 대한 자문과 현장소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 출범했으며, 분야별 10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발히 운영 중에 있다.

미래기획분과위원회는 도정의 총괄적인 발전전략과 정책기획을 자문하는 중추적 위원회로, 지난 3월 첫 번째 회의에 이어 이번 두 번째 회의는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도정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도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이 쏟아졌다.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도 핵심시책인 만큼 의성군과 보다 강한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일본 아오모리현, 덴마크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이도선 미래기획분과위원장은 "지방소멸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주목하고 있다. 소멸지역에 청년들을 끌어 들이는 건 의미있는 일인 만큼 향후 일자리, 접근성, 지속성 등에 많은 고려를 해 달라" 면서 "앞으로 도민과의 통로 역할을

성실히 다하고, 미래경북을 견인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이철우 도지사표 지방소멸 극복 대한민국 대표모델인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일자리, 주거, 복지체계가 두루 갖춰진 새로운 청년마을을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한 의성에 조성해 활기가 넘치는 농촌 마을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경북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새로운 농촌 개발 모델로, 지난 1년 동안 밑그림이 완성되고 올해 그 세부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올해 초 시범마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이웃사촌지원센터가 문을 열었고, 하반기에는 일자리창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센터도 준공될 예정이다.

현장을 찾은 위원들은 “농촌 고령화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청년들이 경북 농촌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홍보하겠다” 고 전했다.

특히, 이날은 현장 중심의 열공하는 도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국 직원 현장 워크숍과 병행·추진해 자문위원들과 직원들이 도정 추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도 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회의는 현장 전문가인 자문위원들과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도정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눴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면서

“위원님들이 제시해준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미래경북을 설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의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화)】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작성자	과 장	김 재 준	
			팀 장	도규명	주무관 유홍석
		연락처	054-880-3606		

경북도, 산사태방지 대책회의 가져.. 산사태 예방대응 상황 중간점검

- 23개 시군 산림부서장 및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명 참석 -

경상북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2일(화) 도청 회의실에서 23개 시군 산림부서장과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산사태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태풍 '콩레이'로 도내 해안지역에만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해 예측이 어려운 만큼 산사태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대비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시군별로 추진해 온 산사태 예방·대응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경북도와 23개 시군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기상상황 등에 따라 위기단계별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태양광발전시설지 등 위험지역에 대한 점검·보수를 추진하는 한편 특히 지난 6월 20일에는 영덕군 강구면 일원 태풍 '콩레이' 산사태피해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사태 대피훈련을 가졌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사태 대책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완벽히 보완해 산사태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과학기술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이 장 준	
			팀 장	홍인기	주무관 권미선
		연 락 처	054-880-2476		

경북도, 전자산업 혁신전략 추진 본격화

- 민선7기 1년, 구미 전자산업 활력회복을 위한 혁신전략 마련 -

- 5세대 이동통신(5G), 홀로그램 성과이어 홈케어 가전, 중소기업형 시스템 반도체, 연구개발특구 추가사업 계획 -

경상북도는 2일(화) 구미를 중심으로 지역 주력산업인 전자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혁신전략과 5대 핵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세대 이동통신(5G) 테스트베드 국가사업 선정(5.21), 홀로그램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6.28) 등 최근 굵직한 성과 이후 경북도 전자산업의 정책적 전환점이 마련되고 행복경제를 지향하는 경북 산업혁신 성장 전략이 본격 구체화 되는 모습이다.

전우헌 경제부지사가 이날 직접 발표한 경북도의 전자산업 혁신전략은 5대 프로젝트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테스트베드 국가사업 ▲홀로그램 기술개발 실증사업 ▲스마트 홈케어가전 사업 ▲중소기업형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 특구 추진이 핵심내용이다.

우선, 최근 큰 성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되는 5세대 이동통신(5G) 테스트베드 국가사업선정과 홀로그램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구미 전자산업 혁신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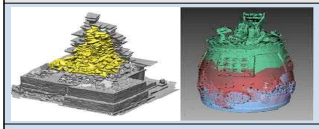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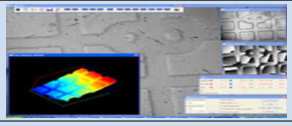
5세대 이동통신(5G) 테스트베드 국가사업은 총사업비 198억원(국비 128, 도비 21, 시비 49)규모의 사업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융합제품에 대한 네트워크 연동시험환경을 제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818억원(국비 1,313, 지방비 94, 기타 411)규모로 경북이 사업화실증 지역으로 선정돼 홀로그램 기반 제조혁신, 문화재 복원 등 홀로그램을 이용한 콘텐츠산업 육성이 가능해져 지역 전자산업의 사업영역을 확장시켜 줄 것으로 보고 그 세부사업계획을 가다듬고 있다.

<참고 : 홀로그램 5대 핵심기술분야>

획득	생성 및 처리	콘텐츠 재현	프린팅	광재현
계측/검출	분석/처리	디스플레이	소형화/파면인쇄	스크린/HUD

<참고 : 홀로그램 3대 사업화 실증분야>

헤리티지		상용차	팩토리
			
문화재 복원(경북)	가상박물관(전북)	차량HUD(전북)	불량검사(경북)

스마트 홈케어 가전사업은 비록 엘지(LG), 삼성과 같은 가전대기업은 이전하였지만 지역에 축적돼 있는 가전산업 역량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전자산업을 스케일업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현재 경북도는 총사업비 8천억 원 규모로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주도의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

으로 진행될 경우 대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가전산업위탁생산 단지를 구축하여 경북형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가전산업의 경우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히 큰 분야로 경북형 일자리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참고> 지능형 홈케어가전 산업

중소기업형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구체화한다.

지난 5월 정부의 비메모리반도체 육성 전략 발표에 대응하여 구미지역을 시스템반도체 제조혁신지역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시스템반도체의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에 착안, 선제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 추진하고 중소기업형 시스템 반도체 혁신성장 플랫폼을 구축해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미니팹(Mini Fab)을 조성하여 지역의 반도체 융합부품 기업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스마트디바이스 생산을 위한 시스템 반도체-반도체 융합부품(센서,소자,광원) - 홀로그램 기술 - 5세대 이동통신(5G) 테스트베드라는 전주기적 밸류체인을 갖추게 돼 스마트디바

이스 산업육성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중소기업형 시스템 반도체 미니팹

Mega Fab.	Mini Fab.
● 일반적인 반도체 공정시설(대기업) ● 설비 규모 : 200m('12 Wafer Process) ● 공정 시설 : 클린룸(수천억 ~ 수조원) ● 생산 특징 : 대량생산/높은 설비투자비용	● 초소형 반도체 공정시설(중소기업) ● 설비 규모 : 20m('0.5 Wafer Process) ● 공정 시설 : 일반 환경(수억 ~ 수십억) ● 생산 특징 : 소량 다품종/낮은 설비투자비

마지막으로 전자산업 혁신기술개발과 기반육성을 위해 구미 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 전자산업 연구개발(R&D)허브로 구축하는 방안도 하반기 본격 추진한다.

경북도는 포항연구개발특구에 이어 구미에도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기 위해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이미 준비했다. 기본계획은 금오공대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중심으로 전자산업기술개발과 생산거점이 연계되는 혁신특구로서 홀로그램, 스마트디바이스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ICT)분야를 핵심육성분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미에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면 연구개발(R&D) 기반 기술창업-사업화실증-생산거점으로 이어지는 전자산업 핵심밸류체인을 갖추게 되어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전망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전자산업 혁신전략에 대한 향후조치사항을 발표하면서 특히, 구미 삼성전자 출신 전자산업 전문가인 경제부지사가 혁신전략

추진회의를 통해 직접 챙기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산업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바이오, 소재산업 등 지역 신성장 산업에 대한 혁신전략 구상도 발표·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구미와 포항의 전자와 철강산업은 경북도의 전통적인 주력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 축이었다” 면서

“경북 전자산업 혁신전략을 통해 지역 전자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제조혁신 성공모델을 만들어 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사진자료

[참고] 경상북도 전자산업 혁신전략 기본체계도

비전·목표

산업고도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경북 전자산업 전반의 혁신동력 마련

⇒ **기대효과** : 구미국가산단 공장가동률(´18: 68.8%→´23: 80%)
+ 경북형 일자리 5,000개 이상 추가 창출 달성

5대 추진전략

① 5G테스트베드	◆ 5G융합제품 이동통신 연동시험환경 제공 ◆ 5G 핵심부품 및 상용화 제품개발 사업 ◆ 5G기반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 선도 ▪ 산업단지안전, 스마트산업단지, IoT복지플랫폼
② 홀로그램 기술개발 예타	◆ 홀로그램 R&D, 인력양성 통한 고도화 추진 ◆ 의료, 제조혁신, 문화재 복원 분야 사업화 실증 ◆ 디지털콘텐츠 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
③ 경북형일자리 홈케어 가전산업	◆ 홈케어가전 핵심기술 확보 및 사업화 실증 ▪ 4차 산업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홈케어 가전 핵심기술 ◆ 홈케어 가전 경북형 일자리 창출 ▪ 홈케어 가전 위탁생산단지 및 오픈이노베이션 구축
④ 중소기업형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 반도체 융합부품 혁신제조 플랫폼(Compact Lab) ▪ 시스템반도체에 적합한 초소형 반도체 공정시설 구축 ◆ 반도체 융합부품 적용 3대 핵심기술 개발 ▪ 센서소자, 광원소자, 복합신호처리용 시스템 모듈
⑤ 구미 강소 연구개발특구	◆ 기술핵심기관(금오공대) 중심의 R&D생태계 ▪ R&D -> 실험실 창업 -> 사업화실증 -> 기업성장 ◆ ICT산업 중심의 국내최대 지식허브 구축 ▪ 핵심기관 견인형 지식공유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